


공동체 소식



**주님 공현 대축일**

하느님,  
오늘, 별의 인도로 성자를 이민족들에게 드러내 보이셨으니,  
믿음으로 하느님을 알게 된 저희도 자비로이 이끄시어,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을 직접 뵈옵게 하소서.

이번 주간의 축일

- 주님 세례 축일 (1/9, 월)

2017년 가정기도 신청에 대하여

- 가정기도를 원하시는 가정은 전례부를 통하여 '가정 기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에는 기도의 지향을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전례꽃 봉헌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 김경돌, 김데보라, 김말자, 김병철, 김인자, 김정자, 김진미, 박혜주, 박태주, 유계화, 이영민, 정연숙, 한순례 (이상 13명, 합계 290불).

2017년 1월 맨하탄 공동체 미사

- 일시: 2017. 1. 21 (토) 오전 11:30.

로렌스 공동체 미사는 없습니다.

'세계 이민의 날 미사' 안내 (1/15, 주일)

- 일시: January 15, 2017 at 5:00 pm.  
- 장소: St. Patrick's in Kansas City, KS (1086 N 94 St, Kansas City, KS 66112).  
- 준비물: 한국 고유 의상 및 장식, 미사 후 간식 나눔.

'설' 합동위령미사 안내 (본날 1/28, 토)

- 일시: 2017. 1. 29 (주일) 오전 11:00 주일교중 미사  
- 미사봉헌 신청: 전례부를 통하여 미리 봉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무금 책정에 대한 안내

- 안내: 교무금은 신앙인이라면 마땅히 부담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또한 의무라는 뜻은 하느님께서 우리 신앙인들을 위하여 은총을 베풀어주시실 때 조금의 오차도 없다는 뜻도 됩니다.

성경말씀에 "여러분이 되질하는 바로 그 되로 그대들도 받을 것입니다."(마태7,2)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파 건
487	512	174	100

주일미사 복사

	시중 복사	향 복사
금주 (1/8)	김정원 안젤라	문호진 안토니오
	정예진 한나	고평원 프란치스코
1/22	문예나 요안나	문호진 안토니오
	차민서 임마누엘	이원준 요한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1/8)	정수한 베드로	백문주 엘리사벳
		김주연 세실리아
1/22	김대연 요셉	김태중 예레미야
		김시연 엘리사벳

애찬 봉사자

금주 (1/8)	박정자, 한순례, 김경돌, 박옥희
차주 (1/15)	이민자의 날 미사(St. Patric's, KC, KS)
1/22	김시연, 신혜경, 김말자

헌금 봉사자

금주 (1/8)	김태중 예레미야, 문석찬 요셉
1/22	정수한 베드로, 김대성 사도요한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성체	헌금	교무금
1/1일	85명	225불	725불
(총 3세대)			
※특별헌금: 500불(안경호, 동양슈퍼사장)			
건축헌금	지난주 합계: 0불, 총합계: 9,600불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김대연 요셉 812.272.4770 moss0106@gmail.com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hin@daum.net

오늘의 전례

오늘은 주님 공현 대축일입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주님의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하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공적으로 당신을 드러내신 '공현'의 의미를 되새깁시다. 긴 순례 끝에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뵈고 기뻐하며 땅에 앞드려 경배한 동방 박사 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며 이 미사에 참여합시다.

그림 묵상

빛을 찾는 사람들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마태 2,11)

하느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최초의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세상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빛의 전달자가 됩니다.

-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로오팔수도

제 1 독서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60,1-6  
<주님의 영광이 네 위에 떠올랐다.>



- ◎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 하느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를 임금의 아들에게 베푸소서.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
- 저 달이 다할 그때까지, 정의와 큰 평화가, 그의 시대에 꽃피게 하소서.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
- 타르시스와 섬나라 임금들이, 예물을 가져오고, 세바와 스바의 임금들이, 조공을 바치게 하소서. 모든 임금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게 하소서. ◎
- 그는 하소연하는 불쌍한 이를,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를 구원하시나이다. 약한 이,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려 주시나이다. ◎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3,2,3-5-6  
<지금은 그리스도의 신비가 계시되었습니다. 곧 다른 민족들도 약속의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

복음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1-12  
<우리는 동방에서 임금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 쉐 마

## 주님은 모든 민족의 군주



에제 36,16-28에 따르면 부정한 길과 행실로 땅을 더럽힌 이스라엘 집안은 바빌론 유배로 인해 민족들 사이로 흩어져 가는 곳마다 하느님의 이름을 더럽힙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이 더럽힌 당신의 이름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고자 걱정하시는데, 이스라엘 조상들과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짓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며, 새 마음과 새 영을 넣어 주시어 그들이 당신의 계명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를 통해 모든 민족이 당신이야말로 참된 주님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1독서의 이사야 예언서는 이렇게 유배를 마치고 되돌아온 이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예루살렘의 빛이신 주님의 영광이 떠올랐다고 노래합니다. 예언자들이 예언한 바대로 주님께서 당신 약속을 기억하시어 이스라엘을 어둠과 암흑의 땅 바빌론에서 구원하여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오게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머무시며 당신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셨음을 노래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만이 참된 주님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영광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이제 예루살렘이 모든 민족이 모여드는 장소가 되리라고 예언합니다.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것이며, 이를 보고 이스라엘 민족도 기뻐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느님만이 만군의 주님임을 찬양하며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민족들 사이에서 더럽힌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게 될 것이며, 모든 민족이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이사 60,1-6).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배한다는 주제는 오늘 전례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화답송으로 노래하는 시편 72장도 타르시스와 섬나라 임금들, 세바와 스바의 임금들이 주님께 모여와서 그분을 경배하고 섬기리라고 노래합니다.

2독서의 에페소서도 이 점을 이야기합니다. 바오로는 신비로 가려져 있던 하느님의 계획이 계시로 드러

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계획은 “다른 민족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의 지체가 되며 약속의 공동 수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에페 3,6). 오늘 봉독한 마태오 복음서도 이 점을 이야기합니다. 마태오 복음서는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리라는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태오에 따르면 유다 베들레헬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되었을 때 동방에서 세 명의 박사가 찾아옵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그분을 경배하러 온 임금들로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오는데, 1독서에서 봉독한 이사 60,5-6의 예언이 떠오릅니다. “바다의 보화가 너에게로 흘러들고, 민족들의 재물이 너에게로 들어온다. 낙타 무리가 너를 덮고, 미디안과 에파의 수낙타들이 너를 덮으리라. 그들은 모두 스바에서 오면서 금과 유향을 가져와, 주님께서 찬미 받으실 일들을 알리리라.”

우리 모두는 구약의 예언, 곧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세상 곳곳에서 주님께 모여든 이들입니다. 육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로마 4,13) 주님의 백성이 된 이들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여와 주님을 경배하는 이들입니다(묵시 21,22). 어떻게 보면 현대의 동방박사들로 하느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하는 이들입니다.

주님 공현 대축일을 맞아 다시 한번 아기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군주로 드러나셨음을 기억합시다. 물론, 우리네 삶은 여전히 어둠으로 가득하고 곳곳에서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곤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영광은 언제나 새로운 예루살렘이자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 거룩히 빛날 것입니다. 그러니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며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 염철호 신부 | 부산가톨릭대학교 성서신학 교수



# 교리산책

## 왜 일요일을 '주일'로 정했을까?

많은 분들이 기도합니다. “주님, 올해는 제가 주일을 잘 지켜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갈 곳도 많고, 행사도 많고, 생계를 위해 일도 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일'의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주일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하느님 안에서 안식을 취하는 거룩한 날입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지는 시각부터 토요일 해지기 바로 전까지의 꼭 하루를 말합니다. 이날에는 완전히 노동이 금지되었습니다.

‘이는 주님이 옛세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안식일에 강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한 것이다’(탈출 20,11)

안식일은 '멈추다', '휴식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동사 '사밧(sabbath)'에서 유래되었으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신명 6,7) 하느님 안에서 안식을 취하는 거룩한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일곱째 날인 토요일을 안식일로 정하고 쉬면서하느님의 창조와 구원의 업적을 묵상하며 거룩하게 지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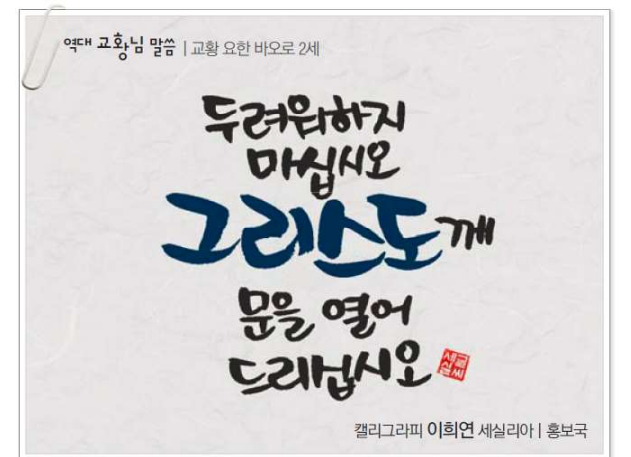
안식일 다음날 곧 주간 첫 날인 일요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도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도인들은 이날을 '주님의 날'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주일이 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에서는 사도 시대부터 지금까지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지내고 있습니다. 7일 주기를 채택하여 부활의 날을 기념하도록 교회의 전통이 생겨난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연중 거행되는 '작은 부활 축일'인 것입니다.

그 주일의 정점은 미사성제의 거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일 미사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매 주일을 통해 부활의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주일 미사의 참된 의미를 충분히 깨달아 주일을 지키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일 것입니다.

- 김지영 사무엘 신부 | 사회교정사목위원장



# 복음묵상

## 보물

- 황금도 귀하고
- 유향도 귀하고
- 몰약도 귀하지만
- 그것을 받는 예수만큼 귀하지 않듯이
- 돈도 귀하고
- 권력도 귀하고
- 명예도 귀하지만
-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만큼 귀하지 않습니다.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마태 2,11)